

대구주보

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연중 제20주일 2016.8.14.(다해) 제2011호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obo.or.kr>



반야월성당 <사진 : 대구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 오늘의 전례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루카 12,49)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고 하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반대받는 표적인 아드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속 비밀을 밝히십니다. 세상에 불을 지르러 오신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진리와 은총을 거부하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고 시대의 표징을 깨달아 하느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도록 노력합니다.

제1독서 예레 38,4-6,8-10 **제2독서** 히브 12,1-4 **복음** 루카 12,49-53.

입당송 보소서, 저희 방패이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굽어보소서. 당신 뜨락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천 날보다 더 좋습니다.

화답송 ◎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영성체송**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답게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죄악(거짓)과 불의 앞에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수철 야고보 신부 | 가창분당 주임

신자들은 연말이 되면 본당 사무실에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옵니다. 예전에는 간혹 신자들 가운데 자신이 낸 교무금과 봉헌금 이상으로 증명서를 발급해줄 것을 당당히 요구하곤 합니다. 안된다고 하면 따지기도 하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라는 말로 자기주장을 펼치기도 하는 해프닝이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말 중에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은 갈등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것저것 따지기 보다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분란 없이 그냥 좋게 넘어가자는 뜻으로 흔히들 사용합니다. 세상에 이 말처럼 훈훈하고 관용과 포용력을 지닌 언어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일을 마무리하자는 것이니 갈등상황에서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설득하는 이들이 인간미 넘치는 따뜻한 사람으로 여겨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허나 꼭 좋은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말 속에는 좋지 않아도 좋은 쪽으로 해결하자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효용성은 건강한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불법이나 잘못을 저지르는 일부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삶의 진리를 다 깨달은 것처럼 ‘사람 사는 것이 다 그렇지’라며 훈계까지 합니다.

그러나 ‘좋은 게 좋은 거다.’ 라는 말속에는 윤리나 도덕적인 평가는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굳이 들추어내거나 문제시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

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정도 썩어야 뭐 어때!’라는 도덕적 불감증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듯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흔히 쓰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의 위선적인 자기변명이며 불법적인 자비와 관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행동으로도 당신의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불이익과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의 불법과 위선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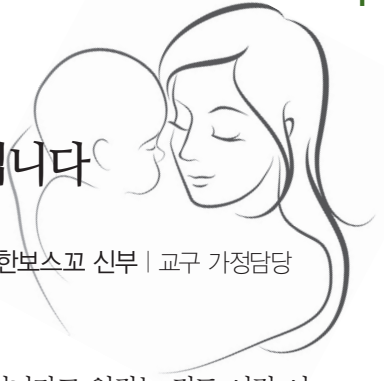
형제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자비와 관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의 불의와 모순 그리고 위선에 대해서는 단호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갈등과 불편함 혹은 위협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우리도 단호해야 할 것입니다. 편리와 이익을 위해 작은 것에 눈감고 변명하려는 자신에게도 단호해야 하며, 세상의 불의와 모순 그리고 위선에 대해서도 단호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도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십자가로 인내하고 이겨내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신자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자신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필문**

가정, 가장 작은 교회

어머니, 당신은 가정의 중심입니다

강영목 요한보스코 신부 | 교구 가정담당



탈무드에 보면, 어머니(아내)를 집안의 영혼으로 표현하며 다음과 같은 예화가 나옵니다.

“어느 선량한 부부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혼을 했다. 남편은 성질 나쁜 여자와 재혼해 새로 얻은 여자와 똑같이 나쁜 사나이가 되었다. 아내 역시 나쁜 사나이와 재혼했지만, 얼마 후 그 사나이는 선량한 사람이 되었다.”

이는 집안의 정신적 가치의 가장 중심에 어머니가 있음을 알려 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아내의 역할이 곧 그 집안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동력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교구에서는 가정사목 프로그램의 하나로 어머니를 위한 ‘성모 마리아 어머니 학교’를 연 5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서 가르쳐 주는 이야기처럼 “어머니, 당신은 가정의 중심입니다.”라는 표어 아래, 여성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남편과 자녀들과의 소통과 이해 속에 성가정의 표상이며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닮아가는 이 시대의 어머니를 발견하는 장소가 바로 어머니학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머니들은 이기주의적 개인주의의 전파를 막는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개인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들은 자신을 나눕니다. 세상에 자녀를 내주기 위해, 그리고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돕기 위해 임신하는 때부터 자신을 나누기 시작합니다.”(2015년 1월 7일, 일반 알현 중에)

어머니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함께하는 것, 나누는 것을 직접 몸소 살아가는 이들이 어머니

이기에 교회를 어머니라고 일컫는 것도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본질적 교회의 속성에 기인합니다.

성모님께서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무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어머니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시작이고 마음의 고향이며, 언제나 넉넉하고 따뜻한 품으로 안아줄 사랑의 보금자리입니다. 어머니학교에 오시는 많은 어머니들을 보며 많은 것을 느낍니다. 가정 안의 힘과 사랑을 회복하고 키워가는 모습을 보며 실로 어머니는 위대하다는 말을 되뇌게 됩니다. 그런데 ‘성모 마리아 어머니학교’라는 명칭의 학교라고 해서, 좋은 어머니의 기술적 방법을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황님께서 강조하시는 어머니의 소중함과 위대함을 깨닫고, 여성으로서의 자신이 좋은 어머니이고, 더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고 느끼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어머니학교입니다. 교구에서 설정한 ‘가정의 해’를 살아가면서, 모든 어머니들이 성모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성모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진정 스스로 훌륭한 어머니임을 발견할 수 있는 어머니학교의 문을 자신 있게 두드려 주시길 기대합니다. ‘어머니, 당신은 가정의 중심입니다.’라는 말을 늘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필문**

2016년 성모 마리아 어머니학교

33기 어머니 학교_9.1~10.6(매주 목), 황성성당

34기 어머니 학교_10.27~12.1(매주 목), 3대리구

문의: 053-250-3114 (교구 가정사목담당)

미니멀 라이프(심플하게 살기)

류재민 세례자요한 신부 | 형곡본당 보좌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사와 정치, 경제와 사회... 이 모든 것은 하나만 따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문화 역시도 이러한 맥락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대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많은 것을 소비하고 소유하기를 원하는 오늘날의 삶에 염증을 느낀 이들이 꼭 필요한 것만 소유하고, 오히려 물건이 아닌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길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 옷도 지니지 마라.”(루카 9,3) 많은 것을 가진다는 것은 복음을 살아가는 데 있어 오히려 하느님의 자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자리를 부족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실천하려는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을 갖고 살아가갈 때, 우리는 복음의 정신을 살아가기에 더 편하고 자유로울 것입니다.

사회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갖기를, 더 좋은 것을 갖기를, 그래서 더 많이 소비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또 과시하고자 합니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마태 19,21)

이런 우리의 삶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문화적 경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니멀 라이프(minimal life)’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해보는다면, ‘심플하게 살기’, ‘단순하게 살기’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내는, 불필요한 과소비를 지양하는, 더 나아가 그 가운데 예수님과 복음을 놓아두는 ‘미니멀 라이프’를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필문**

재미있는 교회 상식

기도의 종류 I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뤄지는 하느님과과의 만남이자 대화입니다. 기도는 그 내용과 표현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기도의 내용 또는 지향을 놓고 볼 때 청원, 감사, 찬미와 흠숭, 찬양 등으로 나뉘집니다.

청원 기도

청원 기도는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로 창조주이신 하느님 앞에서 한 낱 피조물이라는 한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겸손) 하느님을 향해 다시 돌아서는(참회 또는 회개) 자세가 내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청함이 청원의 첫 단계이며 순수한 기도의 전제 조건”(『가톨릭교회교리서』 2631항)이라고 이야기하는 청원 기도에서는 필요한 무엇이든 다 청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청하기 전에 먼저 하느님의 뜻이 이뤄지도록 청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2632항 참조)

다른 이를 위해 청원하는 전구(轉求)도 청원 기도에 포함되는데 전구는 나눔의 행위이며 사랑의 실천으로 한계가 없습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며”(필리 2,4),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한다.”(『가톨릭교회교리서』 2635항)라고 했듯이 원수들을 위해서도 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 기도

다음은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바치는 감사 기도입니다. 기도를 할 때는 청원 기도와 함께 감사 기도를 꼭 해야 합니다. 청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의 결과에 상관없이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1테살 5,18)라는 사도 바오로 성인의 당부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를 드리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거행하는 성찬례, 즉 미사가 감사의 제사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감사 기도에 참여하게 해 주는 감사의 행위는 우리가 일생에 걸쳐 해야 할 기도입니다.

찬미와 흠숭, 찬양

찬미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온갖 은총을 베푸시기에 찬미를 드리는 것입니다. 흠숭은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임을 깨달은 우리가 우리를 지어내시고 악에서 구해주신 구세주의 전능함을 드높이고자 하느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진정 하느님이심을 한결 더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기도의 형태”(『가톨릭교회교리서』 2639항)인 찬양은 하느님께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리며 영광을 드리는 것으로, 하느님 자체를 바라보고 사랑하고 찬미하는 기도의 완성입니다. **▶▶▶**

교구 행사

■ 제14회 한국 잼버리 대회 미사



사진제공 : 가톨릭신문

제14회 한국 잼버리 대회 미사가 8월 7일(일) 오전 10시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오설리 낙동강변 대집회장에서 600여명의 스카우트 대원이 참여한 가운데 장신호(요한 보스코) 보좌주교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생명 가장 큰 하느님의 선물



〈생명사랑운동 참여 방법〉

1. 가정 성화 및 생명 수호 미사 참례

일시 및 장소 : 1월~11월(매월 마지막 월요일 11시), 성모당
특전 : 자비의 희년 전대사 부여

2. 생명사랑 기부 참여

특별 기부(개인 및 단체) / 일반 기부(매월 5천원 이상 기부)
계좌번호 : 대구, 505-10-173562-7 / 국민, 612901-04-227935 /
농협, 301-0183-4632-01
문의 : 053-250-3011

사이버 신종종교와 이단에 주의하십시오!

- 근래 들어 성모당과 각 본당에 **신천지** 신자들이 출몰하여 신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신자여러분들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회에서 금하는 **나주 율리아** 관련 모임에 참여하거나, 관련 장소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나는 과연

박성규 엘리시오



미사안내

이주사목후원회 월례미사	8월 15일(월) 11:00 계산성당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생명평화미사	8월 20일(토) 11:00 성주성당
한티순교성지후원회 월례미사	8월 15일(월) 11:00 순례자성당		8월 20일(토) 11:00 성모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8월 18일(목) 10:00 평화성당	미باه회 월례미사	8월 20일(토) 11:00 성모당
3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8월 20일(토) 10:00 월성성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8월 월례미사는 성모 승천 대축일 관계로 없습니다	

대리구 소식

2대리구 교구장 대리

박성대(요한) 신부 은퇴 감사 미사

일시: 8.24(수) 19:30

장소: 주교좌 범어대성당(프란치스코성당)
초청장은 따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화환과 예물은 기도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소 | 피정

천주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8.20(토) 14:00

장소: 광주 수도회 본원

문의: (010)3800-1579

<http://www.johnofgod.or.kr>

젊은이 하루 성경 통독 피정

일시: 8.27(토) 9:00~17:00

장소: 바틀로교육센터 / 마감: 8.25(목)

주제: 마르코복음 통독 / 피정비: 1만원

대상: 말씀을 갈망하는 젊은이

문의: (010)8852-9817

교육 | 모집 | 기타

성경말씀 안에 머무르는 거룩한 독서모임

접수: 7.31(일)~8.29(월) / 대상: 전신자

강의: 월.화(밤반), 화.수.목(낮반)

장소: 어버이 성경학교 내 별관(경산)

주최: 포교베네딕도수녀회 / 선착순

문의: 815-1114 / (010)2512-4627

군위 소보동지 에니어그램

일시: 9.3(토) 10:00~16:00

강사: 김 연희마리아 수녀

대상: 누구나

회비: 1인 10만원

신청: (010)2649-2045

귀국한 선교사를 위한 교육

기간: 9.29(목)~10.4(화)

장소: 골롬반선교센터(서울)

대상: 해외선교 후 귀국한 선교사

문의: 해외선교사 교육협의회,

(02)953-0613

관덕정 주관 9월 성지순례

일시: 9.18(일), 절두산성지

신청: 8.17(수)부터 선착순

회비: 3만원(중식 포함)

문의: 관덕정, 254-0151

가톨릭신문사 성지순례

10박 11일: 10.3(월) 동부 유럽

경비: 385만원

11박 12일: 10.20(목) 이탈리아, 스

위스, 프랑스 / 경비: 449만원

문의: (02)2281-9070 / www.cttour.org

제20회 캐나다, 필리핀 영어연수

기간: 2차 8.28(일)

3차 9.24(토)

지역: 밴쿠버, 바콜로드

내용: 영어연수, 문화체험, 봉사활동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재건축 후원자 모집

교회를 위한 저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대구은행: 504-10-137072-9

문의: (010)3375-4408

가톨릭상지대 2017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계 전문대학

모집(수시1차): 9.8(목)~29(목)

문의: 교무입학처, (054)851-3021

<http://www.csj.ac.kr>

제주교구 운전기사사도회 제주도 관광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차량, 호텔, 펜션예약가능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천연염색공방 풀라빛
<http://www.풀라빛.com>

- 의류 • 침구류 • 소품
- 염색원단 • 감물 • 혼수품

색의 연구가 **이명숙** (루실라)
Mobile : 010-9350-4922
경북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 730번지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음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고),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페파노) 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신경정신과 전문의/의학박사 대한수면학회 회장/이시강 역임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공진라벤더 맞은편)

☎ (053)942-8822

백내장수술, 근시교정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호성(아오스딩)
의학박사 전문의 조영수(다미야노)

☎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밝은귀보청기

세계 1-5위 미국·덴마크·독일 보청기

서문점 동인점
김은연 세실리아 최준우 미카엘
☎ 053)257-8588 ☎ 053)421-8588

NAVER 밝은귀보청기 검색

척추 관절 중점 병원

척추척골 전문병원

척척병원
WISE MAN Hospital - Spine & Joint

정형외과전문의 박은석(디보테오)
신경외과전문의 신철식(요한)

T. 053)718-7700 www.wisemanhospital.com
대구 북구 을대동 1208-2 (칠곡시장 맞은편)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훈(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

행사 | 모임

가톨릭미용인회 빛모임

일시: 8.22(월) 20:00
 장소: 교구청 가정사목담당 (대건관 2층)
 대상: 가톨릭신자 미용인
 문의: (010)6560-3086

꽃동네 40주년 낙원묘지성당 축복식

감사미사: 9.8(목) 13:30
 출발시간: 8:30
 출발장소: 예약접수 후 통지
 차량문의: 음성꽃동네, (010)5939-6352

제30차 교구 올드레아

일시: 10.15(토) 9:00
 장소: 성김대건 기념관
 주제: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문의: 254-4671

교육 | 모집

대구평신도(2016, 통권29호) 원고 모집

답게살겠습니다: 신앙운동 실천수기 자유기고문: 신앙체험, 시, 수필, 단상 등
 마감: 9.30(금) / 제출: 교구 사목국, dgsamok@daum.net /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채택료를 드립니다.

8월 가나 강좌

일시: 8.21(일) 10:00~17:30(시간엄수)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마리아관

참가비: 1인 2만원(당일 접수) 무료주차
 문의: 교구 가정담당, 250-3114

소람 상담 사목 교육 2학기 모집

신청마감: 8.23(화) / 선착순 100명
 내용: 자기이해 과정(상담심리학, 가족관계학) / 신청비: 각 5만원
 문의: 교구 소람상담소, 250-3100

부모와 교육자를 위한 성교육

집중3일 연수
 기간: 8.23(화)~25(목) 10:00~17: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강사: 이광호(베네딕토) / 마감: 8.19(금)
 문의: 교구 학교복음화담당, 250-3037

한중친선협회 회원 모집

동아리(중국어 / 성경, 성가, 회화 등) 월례회(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친교) 중국 / 성지순례, 문화탐방, 여행활동
 대상: 중국에 관심있는 모든 신자
 문의: (010)2662-1560

대구가톨릭남성합창단 단원 모집

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실 단원(60세 이하)을 찾습니다.
 연습: 첫째, 셋째 일요일 17:00 나머지 토요일 19:00
 문의: (010)3817-1963 / (010)3516-1911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난타·고전무용, 동화구연2급, 오키나나,

수지침, 원어민영어, 필라테스, 발성법, 가곡성가, 하모니카성가, 왕초보관광영어, 미술심리상담2급, 시 창작, 제대사범꽃꽃이, 클래식기타 / 신청: 254-6115

기초반 수화교실 개강

기간: 9.4~11.20(매주 일, 14:00~16:00)
 장소: 계산성당 제2교리실 / 12주 수강료: 8만원(교재비 별도)
 마감: 8.28(일) / 신청: 농아선교회 254-3423 / (010)3809-0447

새빛학교 국어·기초영어반 신입생 모집

국어 개강: 9.5(월)
 영어 개강: 9.8(목) 13:00
 대상: 한글에 자신없는 성인
 문의: 새빛학교, 476-3100(교대역)

대구평화방송 청소년 교육특강

일시: 9.30(금)까지 매주(금) 10:30
 장소: 계산성당 제1교리실
 강사: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진혜전 소장, 산자연학교 교장 이영동 신부
 문의: 대구평화방송, 251-2650 / 2654

채용 | 안내

대구가톨릭대병원 검진센터 이전 오픈

새롭게 단장한 종합검진센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진실시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위치: 암센터·장기이식센터 5층
 문의: 650-4114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656-9911 010-2008-2329

삼성화학건설
 방수공사 / 페인트칠
 신자 10% 할인
 대표번호 1577-2279
 김원(토마스) 010-5623-9001

다비드제통외과
 비수술적 척추, 관절, 신경, 인대 치료 전문 물리치료에 잘 낫지 않는 난치성 통증 전문 원장 권영득 (다윗)
 Tel : (053)351-1704
 칠곡 동아백화점 사거리 지하철 3호선 칠곡운입역에서 도보 10분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홈케어 무료서비스
 무료전화 080-053-1000
 이옥수(아네스) 010-5048-7739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무료암검진 위·대장내시경·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료·고혈압 소화기·내시경 원장/전문의 김영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장효원(요셉) 신부
 TEL 053)615-4871

초음파 백내장, 노안교정 수술
이종화 안과
 원장 전문의 이종화(루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외래교수
 반야월 제천정입구 안심1동 새마을금고 옆
 ☎ 053)964-2445

경일신경과·내과
 대표전화 053) 652-2525
 2호선 내당역 2번 출구 (홍플러스 내당점 맞은편)
 • 치매 / 뇌졸중 상담 268-2525
 • MRI 예약 262-2525
 • 위/대장 내시경, 성인병 종합검진